

강진 용혈암지 광산채굴 훼손 심각

〈향토문화유산 47호〉

광산업체 산지·농지도 무차별 훼손
강진군의회 의원들 현장조사
40년간 환경 파괴·주민불편 야기
주민들 폐광 목소리 높아져

제1대 원묘국사 등 고려 4국사가 수행한 강진 덕룡산 '용혈암지' (향토문화유산 47호)가 광산업체의 불법 채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광산업체(구사광산)는 40여 년 동안의 채굴에 따른 환경 파괴와 주민불편이 야기되면서 주민들의 폐광 목소리가 높은 곳이다.

용혈암지 내에 무단으로 대형경도 입구를 내고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최근 '만덕광업' 현장을 찾은 강진군의회 의원단 6명은 용혈암지 훼손 부분과 8km 경도 내부를 둘러봤다.

의원단은 실지조사를 통해 도암면 석문리 산 207-9번지와 5번지 일야 2필지, 농지 778-11, 12 2필지 등 4필지가 불법 훼손됐다고 확인했다.

훼손된 산지는 채굴 차량 출입로를 내기 위한 것으로 높이 약 8m 폭 6m 크기로 대형 덤프트럭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내어져 있었다.

현장조사에 참여한 한 의원은 광산업체가 군의 산지전용 임대 불허를 의식해 미리 대비해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이 광업권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에 대비해 기존 채굴 차량 출입구를 대신할 대체 출입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또 주민 김 모씨는 "40년 동안 광산이 돈 벌며 먹는 동안 우리의 자연환경 덕룡산은 규사 가루로 온통 뒤 덮혀 환경 훼손은 절대 안된다"며 "만덕광업은 무조건 운영을 중단하고 10년 전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만덕광업은 지난 2012년 가칭 '용혈암 보존과 광업 피해 대책위원회'가 주민 6000여명의 서명을 바탕으로 광업권 허가를 반대하자 2022년까지 10년간만 연장하겠다는 조건으로 광업권 운영 중단과 사업지를 군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만덕광업은 강진군과 약속을 무시한 채 40년 광업권 만료에 앞서 군과 협의도 없이 최근 지식경제부에 추가 20년 광업권 연장을 신청, 허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환경현장 강진군 산림관리팀장은 "산림 불법훼손에 대해 사법조치가 진행중으로 훼손 면적 측량 후 원상복구할 계획이며 농지 불법훼손 부분은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고 불이행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만덕광업에 광업권과 관련 13차례에 걸쳐 산지 점유 허가를 내줬는데 앞으로는 전면 불허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광산업체가 채굴 차량 통행을 위해 경도 입구에 도로를 내면서 산림을 불법 훼손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강진군의회 의원단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업체가 무단으로 조성한 대형 출입구.

나주시, 옛날식 주택 토방 낮춘다

어르신 안전한 일상 도모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 추진

나주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한 '토방 낮춤 사업' (사진)을 본격 추진한다.

'토방' (土房)은 집 마루와 마당 사이 마당보다 조금 높게 흙과 돌을 쌓아 만든 계단으로 흙집에 습기가 타고 올라오는 것을 막고자 옛날식 주택에서 주로 쓰인 전통 건축 양식이다.

토방이 있는 옛날식 주택이 많아 관절염을 앓거나 다리에 힘이 없는 어르신은 높은 토방에 오르내리기가 불편할뿐더러 낙상 사고 위험이 있어왔다.

나주시는 높은 토방을 오르내리는 어르신, 장애인의 거동 불편 해소와 낙상 등 주택 안전사고를 예방에 중점을 두고 토방 특성에 따라 계단 또는 안전한 경사로(발판), 안전손잡이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포면에서는 토방 낮춤 사업을 복지기동대 사업으로 연계, 올해 12가구 완료를 목표로 현재까지 9가구 토방에 계단·경사로를 설치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윤병대 시장은 최근 현안업무 회의를 통해 산포면장으로부터 토방 낮춤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이 사업을 전체 읍·면·동으로 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는 맞춤형복지팀, 복지기동대, 지



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 협력을 통해 토방 낮춤, 안전바 설치 등 낙상 예방 지원 사업 대상 가구 발굴 및 수요조사에 나섰다.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기초연금수급 어르신, 장애인 또는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낙상사고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 가구(만 65세 미만) 등이다.

지원 가구에 선정되면 주택 여건에 맞춰 어르신이 토방에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계단, 경사로, 안전손잡이 설치 등을 추진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군농업인대학 졸업식

딸기 농업전문가 33명 배출

담양군농업인대학이 졸업식을 열고 딸기 농업전문가 33명을 배출했다.

담양군은 최근 담빛농업관 3층 강당에서 졸업생 등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기 담양군농업인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째인 농업인대학은 우리군 주력품목인 딸기를 선택, 딸기 재배형태의 변화에 따른 수경재배과정을 선정 4월부터 딸기수경재배 과정을 개강, 36명의 농업인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농업인대학은 지난 4월 18일 개강 이후 10월 27일까지 총 27회, 약 108시간에 걸친 교육을 진행해 성실히 참석한 33명 농업전문가를 양성, 담양군이 강한 농업으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장기간의 교육 참여 및 자치활동에 공로가 많은 학생장 홍석기 씨가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홍석기 씨는 "7개월 간 농업인대학생으로 딸기 재배관리의 이론과 실전 기술을 배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장흥 회진면 동구마을 '회령포 문화거리' 조성

250m 구간 담장 벽화 그리기

장흥군 회진면 동구마을이 아름다운 문화거리로 탈바꿈했다.

장흥군 회진면 소재지가 최근 담장을 따라 '회령포 문화거리'를 상징하는 벽화가 그려졌다. (사진) 회진면 주민자치센터 특성과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이번 벽화 그리기 사업은 지난 2주 동안 동구마을 250m 구간에서 진행됐다.

장흥군 회진(옛 회령포)은 정유재란 당시 삼도수군통제사로 다시 임용된 이순신 장군이 판옥선 12척을 가지고 조선 수군과 함께 승리의 결의를

다진 곳으로 유명하다. 명량대첩 승리의 기포지 역할을 한 역사 있는 지역으로 이번 벽화그리기의 주제도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했다.

회진면에서는 매년 10월 '회령포 문화축제'를 개최해 해상퍼레이드와 삼도수군통제사 입성식 등을 재현한다.

황호연 회진면 주민자치위원장은 "회진면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벽화거리를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참여사업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나주시, 거북선 건조 '나대용 장군 학술대회'

오늘 나주시민회관서 개최

업적 조명...강연·주제발표·토론

나주시가 문명된 출신으로 거북선을 건조한 체암(遞庵) 나대용 장군의 업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연다.

나주시는 18일 오후 1시 나주시민회관에서 (사)체암나대용장군기념사업회와 호남사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남도, 나주시가 후원하는 '체암나대용 장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임진왜란과 거북선, 나대용 구국정신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학술대회는 '나대용의 임란시기 활동과 역사적 의미'를 다룬 제장명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학계 전문가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주제발표(발표자)는 ▲나대용 장군의 가계와 성장배경(나선하 목포대학교 강사) ▲나대용과 임란시기 거북선(김병륜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원) ▲나주 체암 나대용 유적의 현황과 활용 방안(이수경 지역유산연구원) ▲나대용의 과학 기술 사상과 호국정신의 선양(김대중 부천시박물관장) 순으로 진행된다.

발표 이후에는 이혜중 공주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관련 연구자 7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발표자, 학계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자율 토론과



소총사 입구 체암 나대용 장군 동상.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나주시와 (사)체암나대용장군기념사업회는 학술대회 계기로 나대용 장군의 업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연구과제, 발전·활용방안 등을 도출해 소총사(昭忠祠) 등 관련 유적을 관광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는 나대용 장군 생가와 사당이 있는 소총사(전남도 기념물 제26호) 정비 및 관광자원화를 민선 8기 100대 공약과제로 선정해 (사)체암나대용장군기념사업회에서 추진 중인 중인 '체암나대용장군 문화유산 학술조사 및 영상자료 제작'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

MODERN (트윈스틸) 시공 문의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